

도교육청 “학생 기초학력 높여라”

맞춤형 학습지원학교·두리교사제·예비교원 보조교사제 등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시범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

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개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학습더딤학생의 복합적 원인에 따라 1대 1 학습지원, 자존감 회복, 관계형성 등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학습지원학교'는 올해 432개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316개교, 중학교 83개교, 고등학교 33개교다.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인 '맞춤형학습지원학급'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학급을 운영한다.

특히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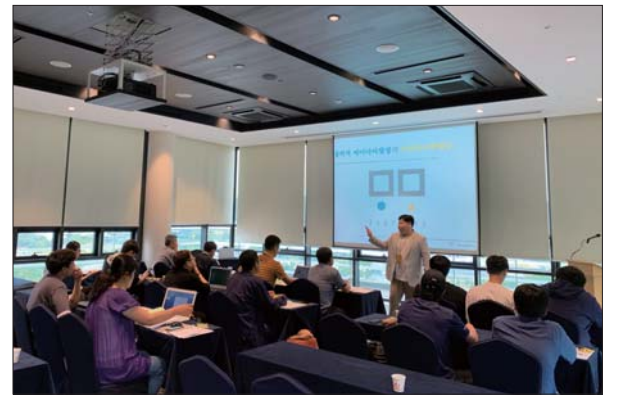
학습속도가 느린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주교대 재학생들

이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초등학교 33개교에 98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관련 연수 운영과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쪽~

창업지원 성과 인정받아 올해도 선정 영예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미래 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지난 2017년 선정돼 일반인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해 온 전북대는 창업 지원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지정된 대학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생,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검증 단계부터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지역 내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한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해왔고,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올해 3억6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아이템 사업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광수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은 "올해도 대학내부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일반인들의 지식재산 상으로 창업아이템 검증 단계부터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지역 내 예비 또는 초기

전주대도 5년 연속 선정... 3억 4000만원 확보

초기 창업자 1500만원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창업에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아이템을 검증해 유망기술 창업자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주대는 이사업에 2016년부터 4년간 239명이 참여해 창업 77건, 시제품 제작 지원 104건, 투자연계 27건(18억 7천만원)을 달성하며 다수의 기술창업기업 및 연구기업

을 육성해 왔다.

올해는 초기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주대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설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전북엔젤투자자클럽의 투자연계와 판로개척 세미나, 국내전시회 지원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도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최은복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은 "그동안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을 수행해온 노하우와 전주대의 인프라,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비축용 보건마스크 1차분 18만 2800여매 배부완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비축용 마스크 배부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 전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용마스크(KF80 이상) 18만2,802매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모두 나눠줬다고 밝혔다.

소형 10만829매, 중형 3만9976매, 대형 3만4,528매가 1차로 배부됐으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4월 중 2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7만7,420매, 군산 2만9,474매, 익산 2만8,965매, 정읍 9,700매, 완주 8,998매 등으로 학생 수에 따라 지급됐다.

이번에 배부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을 한 뒤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환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비축용이다.

기침·코름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기저질환자·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또 보건(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보건용마스크는 면마스크 종류로 1인 2~4매를 구입, 개학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비축용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위학교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개학 전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용마스크(KF80 이상) 18만2,802매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모두 나눠줬다.

전북대 설경원 교수,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전북대학교 설경원 교수(정보소재공학 전공)는 최근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설 교수가 일시납으로 낸 5천만 원은 정보소재공학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맡겨졌다.

이 기금으로 정보소재공학 전공의 모든 학생들에게 매 학기 그래드윈드 것처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겠다는 게 설 교수의 뜻이었다.

설 교수는 "내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생각해보니, 조금 우습지만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못 사줘서 아깝구나 생각이 먼저 들더라"며 "학생들에게 내 나름의 사랑을 오래오래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기금이 사발집이 돼 후배 교수들의 마음까지 모아져 우리 학과만의 소중한 기금으로 이어져 나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 교수는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인력양성센터장, 호남광역권 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전라북도 풍력



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호남광역권선도산업·LINC사업 산학협력 총괄협의회 의장, LINC사업 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에 위촉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방과 학기기술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